

## 광주·전남 오늘부터 장마 시작

광주지방기상청, 내일까지 10~80mm 비 예보

일요일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다시 장맛비

광주·전남지역 장마가 24일부터 시작한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북상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에 장맛비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30~80mm, 그 밖의 지역 10~50mm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정체전선을 따라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형을 따라 강하게 상승하면서 곳에 따라 8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특히 24일 오후부터 밤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강한 비가 내리고 광주·전남 곳곳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바람도 서해안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시속 72km)로 강하게 분다.

비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남하하는 25일 오전 그친다.

광주기상청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는 28일쯤 정체전선이 함께 북상해 다음달 1일까지 장맛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고 예보했다.

비가 오면 30도를 오르내리던 더위 기세는 한풀 꺾인다.

24~25일 비구름이 햇볕을 차단해 광주·전남지역 낮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문다. 다만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1~2도 가량 높다.

비 그친 후 26~27일에는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륙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른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저기압 이동속도가 느려질 경우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남해안 지역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장마는 여름철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습윤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 형성되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뿌리는 비를 말한다.

신봉우 기자

## “하늘에서 총알 비오듯 쏟아져” 불바다 고지전서 구사일생

6·25 70주년

351 고지전 참전 김현조氏

50개월 전방서 고지탈환 사투 “생존자 예우, 형편없어 분통”



6·25참전용사 김현조씨가 22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 대한민국 6·25참전국가유공자 광주남구지회 사무실에서 군 복무 당시 수상한 공로표창장과 군복을 입은 사진을 들고 있다.

“하늘에서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면 그야말로 고지는 온통 불바다가 된다. 전투를 치른 351고지 정상은 전투 때마다 1m씩 깎여 나갈 정도였다.”

15사단 50연대 참성부대원인 김현조씨(90)는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군의 월비산 351고지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고지전을 치른 산증인이다. 현조씨가 탈환을 위해 싸웠던 351고지는 남한과 북한의 치열한 전투 끝에 7번이나 주인이 바뀐 곳으로 유명하다.

“351고지를 우리 50연대가 점령하고 있는데 인민군이 고지로 올라오면 동부전선 바닷가에 있는 군함에서 함포사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아군은 고지에 파놓은 땅굴로 들어가고 하늘에서는 총알이 비오듯이 ‘다다다다’ 쏟아진다. 그러면 아주 일대가 불바다가 되는 거다. 지상에 있는 인민군은 모조리 전멸되고 고지는 1m씩 깎여나갔다.”

김씨는 52년 1월 16일 입대 후 제주도 산병훈련소와 하산학교에서 6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자마자 최전방인 고성에 배치됐다. 그곳에서 56년 8월 31일 하사로 만기전역 하기 전까지 10박 50개월을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전방에서 고지탈환을 위해 사투했다.

전남 해남군 황중리에서 여섯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김씨는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힌 큰 형님 때문에 6·25에 참전을 결심하게 됐다.

당시 남한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지하조직이면 소망대장이던 큰 형님을 포로로 잡아가 총살을 하려 했다. ‘대한민국에 협조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제 더미에서 몰래 살아 돌아온 형님을 집 안에서 숨겨 돌보던 어머니는 시름시를 앞으시다 1년 후 돌아가셨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에 참전하려 했다.

김민정 기자

### 녹차 삼매경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23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남도명산 월출산 남쪽자락에 자리 잡은 33.3ha의 광활한 강진다원 녹차밭이 푸르름을 더해 시원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 광주시, 결혼식·돌잔치

‘식사하지 않고 축하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 전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에 ‘식사하지 않고 축하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구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식사하지 않고 축하하기’ 캠페인 동참을 독려했다. 결혼식장 관계자와 혼주 등에게는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하기’를 권고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대규모 집합시설 등을 통한 지역 감염 확산이 끊이지 않고 80여일만에 광주에서 다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

결혼식장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데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특성상 감염 위험이 매우 커 철저한 단속과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난 5월부터 지역내 16개 대형 결혼식장 등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시·구 합동 점검 2회, 시·구 합동점검 2회 등 4차례 점검을 실시했고 자치구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매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